

서 평 지

서평 제목	자연이 인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참가번호	2024-24
도 서 명	인류세의 철학	확 인	기재하지 마세요

-들어가며-

유난히 더웠던 올해의 여름도, 재난의 일부일 뿐이다. 폭염,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자연재해는 그저 우연이 아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재난을 통해 인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인간은 오랫동안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어왔지만, 이제 자연은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인류세의 철학』은 바로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철학적 여정을 안내한다.

-인류세의 철학에 대하여-

『인류세의 철학』은 교토대학교의 시노하라 마시타케 교수가 인류세 개념을 철학적으로 탐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의 이름은 한국 독자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지만, 저자는 일본에서 인류세 철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여기서 ‘인류세’란 인간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지구의 환경을 바꾸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인류세를 철학의 관점에서 다루기 시작한 책이 스웨덴에서 2016년에 처음 출간되었다고 한다. 그만큼 인류세라는 개념은 낯설면서도 중요한 개념이다. 시노하라 마시타케는 서양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인류세 개념을 동양에서도 다루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인류세의 철학』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 세계의 이탈, 인간 세계의 취약함, 생태적 세계, 사물적 세계와 시적 언어의 가능성, 생태적 공존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책에서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자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지질학적 행위자’가 되었음을 강조한다. 이 말이 꼭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또한 인간이 자연을 종속시킬 수 있다는 걸 의미하지도 않으며, 어떻게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룰지 숙고해야 한다는 것이 책의 핵심 메시지다.

-책 속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저자가 시인의 언어를 빌려 자연의 메시지를 읽으려 했다는 점이다. 일본 시인 ‘오노’의 시를 인용하며, 인간이 공업화 속에서 자연과 맺는 관계를 설명한다. ‘오노’의 시에는 인간이 이상적으로 그려왔던 온화한 자연과는 달리, 재난과 같은 혹독한 자연과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자연과 대화를 하게 된다고 말한다.

"인간은 공업화 속에서 정신성이라는 인간다움의 일부를 상실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자연이라는 세계 속으로 더욱 깊게 들어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향토적인 언어로 그려지는 온화한 자연과는 전혀 다른 혹독한 자연과의 만남이자, 그 혹독함 속에서 자연의 물질성과의 만남이다."

서평 제목	자연이 인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참가번호	2024-24
(186p) 위 구절은 저자가 ‘오노’의 시를 해석한 구절이다. 이처럼 저자는 시적 언어가 자연을 새롭게 파악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는 그저 감상만이 아닌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여러 관점에서 사유하게 만드는 중요한 철학적 방법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인류세의 철학』은 저자의 생각만 펼치는 것이 아닌 여러 학자의 견해를 통해 자연의 메시지를 파악하려 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중 생태학자 티모시 모튼의 주장은 저자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다. "모튼의 주장을 믿는다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물이야말로 사물이 본래 갖추고 있는 성질을 느끼게 해주는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161p) 티모시 모튼은 자연재해와 같은 붕괴, 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물”을 꼭 부정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붕괴는 현실성을 보여주는 존재로 본다. 그 예시로 저자는 일본 대지진 사건의 사진을 보며 현실감을 느낀 사례를 든다. 재난은 좌절의 대상이 아닌 자연의 메시지로써, 즉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흥미로웠던 점은 한국 독자에 대한 배려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한국 영화 “기생충”을 예로 들며, 자연재해와 인간의 한계를 설명한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폭우로 집이 잠기는 장면은 자연이 현실성을 보여주는 사례와 유사하다. 자연의 변화로 인간은 위협을 받으며, 우리는 자연의 변화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개인적으로 봉준호 감독을 좋아하는데, 그의 <기생충>에 나오는, 폭우로 집이 잠기는 장면을 보면서 당시의 상황이 떠올랐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자연의 존재 방식이 예전과 달라졌음을 알았고, 인간의 존재 방식과 자연의 존재 방식을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13p) 이러한 구체적인 예시는 한국 독자에게 친숙함을 주고, 자연의 메시지를 더욱 깊게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생각한다. -마무리하며- 『인류세의 철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더 이상 자연과 인간의 이분법적인 관계가 아님을 강조한다.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해야 하며, 이는 철학적 성찰을 요구한다. 이 책은 독자에게 우리가 자연과 어떻게 공존하며 살아갈지 질문을 던진다. 그러기 위해선 자연의 메시지에 귀 기울일 준비를 해야 한다. 자연은 이미 인류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고, 인류는 이제 답을 할 차례이다. 이 책은 중요한 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인간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 또는 그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이 강요하는 부정, 억압, 불평등, 획일성을 어떻게 피해 가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진보, 계급투쟁, 노예 상태와의 싸움, 러시아 혁명, 중국 혁명, 나치즘과 파시즘에 대한 저항, 탈식민지화, 쿠바와 베트남의 역사적 사건들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되어 왔다." (92p) 우리는 위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의 자유를 인간이란 존재로부터의 자유로만 받아들였다. 이제 우리는 자연으로부터의 자유도 생각해야 한다. 자연이 보내는 메시지를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이제 한국의 독자들도 자연의 경고에 대해 대답해야 할 순간이 다가왔다.			

서평 제목	자연이 인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참가번호	2024-24